

제3회 인천국제현대무용제 - Young Artist 경연프로그램 결과발표

2015. 10. 30.(금) 오후 7시

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

순위	수상안무자	수상작	상목	평점
1	서윤신	Hangman Game	우승	94.00
2	조선영, 최정윤	들여다보다 (Inside My Body)	준우승	91.00

<심사평>

심사위원 홍이룡 사무국장: 전반적으로 인문학적 소재를 주제로 맞추어 간다는 부분에 아쉬움을 느꼈다. 안무가들의 인문학적 견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하여 관객에게 전달 될 수 있기를 바란다.

심사위원 류석훈 안무가: 작품의 다양성을 볼 수 있어 좋았다. 또한 각 작품의 작가정신에 박수를 보낸다. 하지만 안무구성이나 오브제 사용 등 작품을 풀어가는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였으면 한다.

심사위원 이동민 대표: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된 무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. 그런 점에서 경연에 참가한 무용가들의 작품에서 구성과 표현, 양부문의 밀도를 만들어내려고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보여 박수를 보낸다. 다만, 평이한 스타일의 구성에서 벗어난 신선함을 느끼기엔 부족한 면이 있었다.